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부패방지·인권경영시스템 인증 동시 취득

송고 2024-12-04 10:47

"부패 위험 지속적·체계적 관리, 인권 존중 문화 정착 노력"



[평창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조직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식별, 분석, 통제, 모니터링 및 개선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준규격이다.

공단은 부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인증을 추진해 왔다.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매뉴얼과 절차서 수립, 부서별·업무별 부패 유발요소 식별 및 위험요인 평가표 작성, 부패 통제수단 마련, 내부심사원 양성 교육 등 국제 표준에 맞춘 요구사항을 충족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인권경영시스템은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체계를 심사한 후 인증하는 제도다.

공단은 인권경영 매뉴얼과 지침서를 마련하고, 인권 존중 문화 구축을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인권이슈에 대한 리스크 사전 예방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순철 공단 이사장은 "인증 취득을 통해 공단의 부패 위험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12/04 10:47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